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5호 【투게 제26169호】 주제 107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 올해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어 랑 천 4 호 발 전 소 건 설 힘 있게 추 진 세 차 게 몰 아 지 는 사 회 주 의 경 쟁 열 풍 삼 지 연 군 꾸 리 기 전 투 장 에 서

5개년전략목표수행 중산동력 운동의 불길놀이 어랑천4호발전소건설자들이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방대한 량의 작업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낸 기세로들이 기본물질공급도정공사에 진입한 이곳 건설자들은 매일 수심1m의 공굴기를 진행하여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천수백m에 달하는 기본물질공급도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자체의 힘과 기술로 5만톤의 장조를 풀용하게 시공하여 100여일에 달하는 작업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도물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를 설립해서 우리 나라의 전력생산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량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원으로 보장하도록 하라야 합니다.』

지난 7월 어랑천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발전소 건설자들이 국가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누가 알아주지않는

때, 쌍용광산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동력대원들은 합리적인 발파방법들과 가스제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공굴기와 머더치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배사장을 맡은 도립원관리국 대대의 동력대원들은 걸린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고 새로운 발파제거방법들을 받아들여 공굴기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발전기실건설장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5만톤발파용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발전기실건설을 훨씬 앞당길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 부형수력발전기실사업소와 청진시대의 동력대원들은 매일 수백m²의 토량을 처리하고있다. 특히 굴삭기운전공들과 대형화물자동차운전자들은 운전기세들에 대한 자정지수제를 철저히 세외 단가봉을 보장하고있다.

건설의 주요대상을 맡은 창포연세건설자들도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대대와 도립원관리국대대의 전무원들은 기상편에 불려지고 방위에 의한 가물막이방법과 합리적인

발파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가물막이전투와 언제기초암 단굴작공사를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또한 콘베이어와 혼합기를 비롯한 설비설치와 크리드구조공사를 대부분을 해체해 언제기실을 일당일수 있는 품질기술적도태를 마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관철에 열쳐나선 216사단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동력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백두원익이 창조와 혁신으로 뛰어넘어지고있다.

사단안의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운동, 정교도관운동을 활발히 벌여지는 속에 살림집과 공공건물, 각종 시설물의 내외부공사와 지대정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공사성과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적의, 당과 혁명의 리의를 우선시하고 앞선 단위의 성과를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야기하며,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부터 216사단 현지지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시공단위별사회의 경쟁을 조직하고 이 사업을 방

흑연생산능력확장공사 80%계선 돌파

흑연생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흑연생산능력확장공사를 본태있게 다그치고있다.

생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역경쟁,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초공사와 프로그래밍기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고 10여대의 부설기설치를 끝냈다. 수백m나 되는 배관설치공사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콘베이어와 수직양력호브수도 끝난 능력확장공사는 80%계선에 이르렀다.

이 공사가 계속되면 질 좋은 흑연을 더 많이 생산하여 강철 생산에 걸림이 될수 있는 전극용 흑연탄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량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부단히 개선완비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의 주재화실현에서 흑연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성의 일군들은

은 노력있는 정무원들을 생산에 파견하고 필요한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세워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생산에서는 능력확장공사를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일일계획을 면밀히 세워주고 대량의 창조적의욕을 총출시키고있다.

수십이 넘는 부설기와 능률기 등 많은 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전투는 생산장이 산중턱에 위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어려웠다. 하지만 이곳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운반설비들을 제작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지열한 조립전투를 벌이며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공무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보증을 역세대로 들어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신만한 태도를 안고 전통장치가 없는 에너지절약형의 농축공정을 확립하여 설비제작과 조립기업을 단속하고 많은 전기기를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콘베이어설치공사를 맡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내부에 힘을 모아 100여

차료를 종전보다 훨씬 높였으며 물을 초과해서 사용해서 새워 전력생산을 높이고 있다.

만민원발전소, 평정원발전소에서도 전력생산량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계획을 명백하게 세우고 물관리,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전력생산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있다.

이곳 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은 불합리한 공정과 시설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발전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만기투입을 보장하는 힘을 높이고 있다.

우시1호, 2호발전소에서는 물량을 과학적으로 라산한데 기초하여 발전설비들의 부하분배를 합리적으로 펴고들었다. 그리하여 같은 량의 물을 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도안의 다른 중소형발전소들에서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운동, 정교도관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전력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책과기자 김 순 흥



중산동력전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326발전공장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작

신 의 주 화 장 품 공 장 에 서

신 의 주 화 장 품 공 장 에 서

신 의 주 화 장 품 공 장 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열띤 투쟁과 끈을 힘있게 벌려 우리 식의 천연염색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 나라에 흔한 식물성고려약재들을 원료로 하는 천연염색제가 개발됨으로써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이 없고 감이 높은 머리카락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새 재개발과 질적고에 힘을 넣어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경쟁력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 하라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소비품들중의 하나이다. 인간적으로 머리카락 생산에는 염색제가 이용되는데 크게 화학염색제와 천연염색제로 구분할 수 있다.

자료를 의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머리카락 염색에 쓰이고있는 염색제의 대부분이 화학염색제라고 한다. 그런데 화학염색제가 들어있는 물감성분은 그자체가 공인된 독성물질이다. 이 때문에 머리카락 염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더 많은 독성성분을 첨가하는데

벼 단 실 어 들 이 기 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제2선참호를 지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 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황해남도에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2선참호를 지켜나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해나선 농업근로자들은 벼가을을 풀던 기세로 낫날리기 운동을 본태있게 내밀고있다. 드넓은 협동농장마다에서 벼단실어들이기와 낫날리기를 다그치고있다.

중산동력운동에 한걸음이 떨어진 216사단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벼가을을 계속한 기세로 요즘 벼단실어들이기와 낫날리기를 면밀히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짧은 기간에 벼단실어들이기와 낫날리기를 풀내기 위한 투쟁에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최선적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 있다.

도농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 온 한데 해체 지어놓은 낫날을 한알도 버리지 않게끔 벼가을을 풀내기 위한 일일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대원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낫날리기를 붙이 번쩍 내게 해내고있다.

본사기자 김 충 성

남 알 렬 기 전 투 에서 련 일 혁신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농사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안아 온 신성도들이 벼단실어들이기와 낫날리기를 본태있게 벌리고있다.

낫날리기전투의 성과여부는 자기자신들에게 달려있는것을 깊이 명심한 채우시의 일군들은 불같은 협동농장들에서 최선적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태로 힘있게 추진하여 벼단실어들이기와 낫날리기를 면밀히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청간군을 비롯한 모든 군들에서 벼단실어들이기와 낫날리기전투가 본태있게 벌어지고있다. 군들에서는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고 할곡기들의 만기투입을 보장하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2선참호를 지켜나가는 책임감을 안고 중산동력운동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벼가을을 풀던 기세로 낫날리기를 면밀히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밤낮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연안군의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서 벼단실어들이기를 일일계획대로 내밀고 낫날리기에 열광을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농사

투쟁방식, 창조본때이며 최후승리의 원동력이다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설 때 기적이 창조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함에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강령도가 전국의 일장에서 기수마당 투쟁치며 내달리고있다.

도안의 이르는 뜻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배일에 대한 확신이 넘쳐흐르고있다.

하다면 지난 시기 남의 도움만 바라던 강령도가 《강성도》, 《강원도》, 《강철도》로 불려우어 시대의 전열에 보부당당히 서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만능의 모범으로 들어올려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력갱생의 강철로 키우는 사업을 확고히 일제히나간 이곳 도당위원회의 결심과 결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나갈수 있으며 최약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도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선 대중의 심정이다. 자기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상사업에 큰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강원도 당 위원회에서

원산정년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규모의 대상건설을 조직진행하면서 도당위원회는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선 대중의 정신력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창조의 원천이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이로부터 도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을 자력갱생의 장사들로 키우기 위한 사상사업에 선지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더욱 공세적으로 벌여나갔다.

도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으로 도안에 과학기술사업장을 세차게 일으켜 나간것이다.

도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으로 도안에 과학기술사업장을 세차게 일으켜 나간것이다.

《자력갱생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자력갱생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당위원회에서는 먼저 도과학기위원회와 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평범한 노동자, 농민들속에서 제기되는 기술혁신의 지그마만 해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그들의 창의성발양을 적극 제발시켜나간다고 하였다.

최근 도안의 곳곳에 코코작은 자력갱생기자들이 새로 일떠서고 대상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콘크리트와 자력갱생산출물과 같은 것은 과학기술연구소들이 인양한 자력갱생정신이다.

지난 7월 강원도의 여러 단위를 현지지도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기적창조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강원도인민들의 투쟁기풍과 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해주셨다.

실현을 통해 자력갱생이 제일이며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뼈와 살로 새긴 도당위원회원들은 자력갱생의 창조제전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어일어나게 하며 좋은 대미를 향하여 손길의 힘과 담보도 없이 계속 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자 하고 있다.

본사기자 윤병철

전세대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혁신기계련합기업소에서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지난간 인민경제계획을 세달이상이나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자력갱생은 오르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구호입니다.》

올해 련합기업소앞에 나선 대상실생성사업은 방대하였다.

유양식공작기와 트랙트르공작기, 산소분리기, 제철, 강속기대차생산, 수송기의 대형양수기까지...

그러나 하나의 중요과제를 수행하고자보니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막힘의 로동동태에 대한 억만금에 못지않은 고귀한 투쟁기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혁명의 년대마다 발휘된 자력갱생의 고귀한 투쟁기풍이었다.

혁신기계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백철불굴의 투지로 만남을 뚫고나가며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흥건도전역에 기적과 위훈의 불길이 세차게 떠오르고있다. 무슨 감동속에 의한 압축현상으로 하루에도 여러차례나 방죽제가 내려앉은 하는 악조건에서도 순간의 중요와 침체도 없이 치열한 격전을 벌이며 2단계 1구역 1차물막이공사과제를 94%로 해체된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였다.

갈라졌던 풍적정신은 과연 어디로 뿌리를 두었는가.

위대한 투쟁도 자기 힘에 의지하는 다음과 같이 고사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싸워 승리하여온것처럼 앞으로 그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도 공사를 힘있게 내밀며 지난 2월 중순까지 흥건도간석지 2단계 1구역의 현제방수공사와 침체적으로 해체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1호방수제건설에 달려붙었다.

모디서 더 큰 시련과 난관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1호방수제건설이 폭지에서 밀려들어 온 것보다도 지진이 매우 불리 하루에도 4-5차례, 최고 13차례까지 제방굴출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것이다. 연유, 막돌과 흙을 비롯한 저체소시방이 몇몇도 늘어났고 그만큼 공사속도도 지연되었으며 건설자들도 힘겨워하였다. 실상가상으로 절도시공의 체적과 토질조건은 역시 전례없이 불리하여 종전같은 한편의 밭과도 미련이 없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의 위력은 오르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구호입니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동적 운동의 일정에 걸맞은 심장으로 명세한 2.8직동청년탄광에서 도당 당이 안겨준 자력갱생의 기적,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석탄생산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자력갱생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자력갱생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진격의 돌파구를

2.8 직동청년탄광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만장일치로 받들고 있는 2.8직동청년탄광에서 도당 당이 안겨준 자력갱생의 기적,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석탄생산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자력갱생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자력갱생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이러한 투쟁정신을 만능의 모범으로 들어올려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력갱생의 강철로 키우는 사업을 확고히 일제히나간 이곳 도당위원회의 결심과 결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